16일 취임식서 “부산검찰청사 24년 만에 다시 와”  
  
  
  
  
  
  
  
송경호 신임 부산고검장은 지난 16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는 등 변화된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따가운 평가가 많을수록 상식을 지키는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송 고검장은 이날 오후 부산고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우선 “항고사건 등을 처리할 때 편견과 선입견 없이 지검 등의 판단을 다시 살펴 합당한 결론을 내리고 특히 소외된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 공판, 집행 등 모든 절차에서 정성과 성심을 다해 바른 판단을 하고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사건관계인의 말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부산검찰청사는 2000년 부산지검 검사로 첫 출근을 했던 곳으로 24년 만에 다시 오게 돼 감회가 새롭고 초심을 떠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송 고검장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백현동 비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SPC그룹의 민주노총 탈퇴 종용 등 굵직한 사건을 지휘했다.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수사도 지휘했다.지난 13일 법무부 인사에 따라 이날부터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일각에서는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 교체 차원에서 이뤄진 ‘좌천성 승진’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